



한국칼빈주의 신학연구원 발표 논문

2000년 5월 18일 목요일

## 21세기 역동적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향하여

### *Toward Dynamic Reformed Biblical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허 주 (고려신학교 신약학 교수/ juhur@kts.or.kr)

#### 1. 들어가는 말

미국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Childs는 서구 신학계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970년 이래로 새로운 성경신학 재건의 기치아래 일련의 저서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로부터 서구 성서학(Biblical Studies)은 새 천년의 성서학적 가족부대에 맞는 새 비평적 포도주를 준비함으로써, 신학(Theology)과 거리를 두면서 성서학 자체의 독자적 발걸음의 행보를 폭 넓고도 과감하게 내딛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것은 서구 성서학을 대변해 주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성서문헌학회)에서 올 2000년부터 3개의 연구 협의회(Consultations)를 새롭게 더 추가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바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과 신약학과 후기-식민지학(New Testament Studies and Post-Colonial Studies)이다. 이것은 바로 서구 신학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경신학의 위치와 또 한편으론 별도의 영역으로서의 성서학(신약학과 구약학을 포함하는)이 비신학적 연계학문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의 현대 신학계의 좌표이다. 이런 현대 서구 신학계를 목도하면서, 필자는 신약학/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자로서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관계 설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21세기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논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 될 것이다: (1) 성경신학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살핀 후 (2)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그 전제와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3) 현대 신약학의 경향을 성경 해석학적 차원의 흐름에게 밝히고 (4)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면서 (5) 21세기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원리적 틀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몸 말

##### 2.1. 성경신학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의 태동과 이와 관련된 용어들

신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출판되는 일반 잡지나 전문 잡지들을 보면, 우린 쉽사리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란 용어를 접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 이 성경신학이란 용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신학(Theology)이라는 의미 내지는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의미로 통용되어지는 것 같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의 중복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 서구 신학계의 동향을 염두에 둘 때, 특히 본 논문의 제목과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 용어들을 이 용어들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나름대로의 정의가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2.1.1. 신학(Theology)이란?

일반적 의미에서 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신학의 영역을 다른 일반 학문적 분과들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다. 즉, 법학, 의학, 철학 따위의 학문적 영역과의 차이 속에서 어원적으로 신학을 정의할 때, 신학(Theology: Theos + Logos)은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



(Theos)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과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는 (1)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된 제 2성전이 훼파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관심이 성문화된 율법에 더욱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특히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 교회 교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내적 이유, 이와 동시에 다른 신앙을 주장하는 이단들로부터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외적 이유가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결정적 진보는 무엇보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신학을 초대와 중세 교부들(Church Fathers)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신학(Theology of the Church) 내지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y for the Church)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은 (1) 성경적/ 바른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y for the Biblical Church)과 (2)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Theology away from the Church)의 두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다. 즉, 16, 17세기까지도 서구신학의 주된 관심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세우고, 변증하는 교리 중심의 신학(Dogma-Centered Theology)이었던 것이다.

## 2.1.2.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이란?

신학이 학문의 영역으로서 발전하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연구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고백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된 문서로서의 성경(The Holy Bible)이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신앙 공동체의 신앙적, 신학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경을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서 결국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셈이 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족적으로도 동질성을 잃지 않는 유대교 신앙 공동체이며, 둘째는 민족적 개념을 초월하는 우주적 기독교 신앙 공동체이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말할 때, 히브리 성경(The Hebrew Bible) 내지 (칠십인역을 포함한) 유대인 성경(The Jewish Bible)을 정경으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성경 뿐 아니라(즉, 구약 - Old Testament), 1세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27권의 유대문서까지도 성경으로(즉, 신약 - New Testament) 신앙함으로써, 같은 표현(the Bible)을 통해 다른 기록 양식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공동체의 신학함을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이라 하고, 히브리 성경을 정경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신학함을 유대교 신학(Jewish Theology)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학의 규범적 텍스트로서의 신구약 66권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둘째는 이 명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한 신학함(doing theology)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기독교 신학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미국 내의 성경대학(Bible College)과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의 양적 규모 그리고 서구 복음주의 계통 출판사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신학과 신앙이 여러 면에서 미국의 신학과 신앙의 모판과 같은 것은, 한국의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과 많은 한국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한국 대부분의 신학교들의 교과과정이 대체로 미국 신학교들의 커리큘럼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신학 수업은 미국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모델로 해서 일반적으로 7-8가지 영역, 즉 (1) 성경원어(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2) 구약신학 (3) 신약신학 (4) 성경해석학 (5) 변증학을 포함한 조직/교의신학 (6) 역사신학 (7) 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등을 포함하는 실천신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독교 신학은 그 성격의 본질적 차원에서 볼 때 위에서 구분한 각각의 영역이 반드시 상호관련 속에서 결국, 신학자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 더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적 신학으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점이다.



### 2.1.3. 성서학(Biblical Studies)이란?

서구에서 Biblical Studies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용어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Theology라는 용어와 의도적인 비교 내지 구별을 위해 사용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1970년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Biblical Studies라는 용어의 배아기는 신학의 접근 경향에 있어서 교리신학과 나름대로의 구별을 요구하기 시작한 18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1787년 3월 30일에 요한 필립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가 알트도르프(Altdorf) 대학교의 교수 취임 강연의 제목을 주목하게 된다: *Oratio de justo discrimine theologic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An address concerning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proper determination of the goals of each: 성경적 신학과 교리적 신학의 적절한 구별과 그들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정의에 대한 강연).

역사적 또는 서술적 성격을 지녀야 할 성경적 신학과 규범적 또는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리적 신학과의 차이를 주장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Theology away from the Church)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18세기 이후에 전통적 기독교 교리/신앙에 대한 의심은 소위 *학문으로서의 신학하기*(Doing Theology as Science)라는 명제와 맞물리게 되고 만다. 이 시기에 사상적 배경이 되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 그리고 특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세속 이론에 힘입으면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구라파와 북미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 역사비평(Historical-Criticism)이라는 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발전시켰고, 1970년대 이후로 다른 인접 학문(예를 들면, 언어학, 사회학, 문학이론)과 특히 일반 해석학의 이론적 발달에 힘입으면서, 역사비평의 연장 또는 단절의 상이한 수용 속에서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적/후기현대주의(Post-Modernism)적 또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적 성경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신학(Theology)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경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구에서 Biblical Studies의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 신학부(Theological Department)이기 보다 (비교) 종교학부(Religious Department)의 성격과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20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서학(Biblical Studies)과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의 상호관계는 마치 18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성경적 신학(Biblical Theology)과 교리적 신학(Dogmatic Theology)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와 그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한편, 각각의 영역 명칭과 관련하여 성서학은 구약학(Old Testament Studies)과 신약학(New Testament Studies)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기독교 신학은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과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으로 명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과 달리 성서학은 구약학과 신약학의 이름 하에 각각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각각의 범위(즉 구약과 신약) 내에서도 성경의 책별, 저자별, 장르별 분석에 있어서 어떤 통일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성 그리고 상이성을 끊임없이 밝히려 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구약신학 또는 신약신학 그리고 결국 성경 신학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 2.1.4.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란?

앞에서 언급한 철학적, 이론적 영향 속에서 성서학(Biblical Studies)이 계속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성서학적 접근은 성경 각 권과 주제에 대해 개별적이면서 다양하게 그리고 나아가서 상이하게 주장되어 지면서, 성서학자들 안팎으로 염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구 성서학의 이런 경향에 대한 반성과 경고의 소리가 바로 성경신학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이란 이름으로 1940년대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성경신학운동의 외침에는 크게 교회를 위한 신학, 통일성 있는 신구약 성경 그리고 역사와 계시의 조화와 같은, 말하자면, 학문으로서의 신학하기라는 울타리



내에서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는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신학적 도전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즉, 성경신학운동은 20세기 서구 신학에 있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성서학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대응 운동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기 위한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신앙과 역사의 이분법적 획을 기초로 한 성서학에 대한 이 같은 성경신학운동의 갱신의 목소리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신학자들의 각기 다른 학문적, 신앙적, 교회적 배경으로 인해,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신학 전개의 방법에 있어 그 신학적 전제의 불일치로 기인해서 이 성경신학운동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오늘 날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파도 속에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 2.2.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이란?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성경신학적 접근(Biblical-Theological Approach)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두 구약학 교수들인 Joseph Addison Alexander(1809-1860)와 William Henry Green(1825-1900)으로부터 받아하여, 역시 같은 신학교 교수로 39년(1893-1932) 동안 재직한 바 있는 Geerhardus Vos(1862-1949)에 의해 그 당시 역사와 계시의 이분법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신학적 경향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는 하나의 성경신학적 관점이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이라 칭하고자 한다.

1894년 가을 학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설되는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의 첫 교수로 취임했던 Vos는 학문과 신학적 분과로서의 성경신학의 개념(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이란 취임 연설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적 접근을 선보이고 있다.

그 당시 Vos가 신학을 크게 4개 분야 즉,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이해한 후, 그의 성경신학을 주경신학의 한 부분으로, 즉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서의 주경신학 내의 성경신학을 정의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날로 볼 때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한 분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Vos는 성경신학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에 따르면,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Biblical Theology is that branch of Exegetical Theology which deals with the process of the self-revelation of God deposited in the Bible)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Vos가 정의하는 성경신학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Vos는 그의 성경신학을 간단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선호하는 표현으로써 특별계시의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로 정의하고 있다. 이제 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전제와 그 주요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 2.2.1.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전제와 그 특징

2.2.1.1.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이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는 계시하셨다라는 계시의존의 신앙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온전하고 충분하게 나타났다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히 1:1-2; 딤후 3:15-17; 벧후 1:20-21 참조).



2.2.1.2. **성경의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는 역사적 점진성(Historical Progressiveness)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세계와 관련 지으면서 나타나는데, 성경은 특히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구속(redemption)을 초점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밝혀져 나가게 된다 (히 1:1-2 참조).

2.2.1.3. **이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 나타나는 성경의 특별계시는 구속사(언약)적(Redemptive Historical/ Covenantal) 이해과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ed)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을 다루는 특별한 계시로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관계(covenant relationship: e.g. 노아[창 9:8-17], 아브라함[창 12:1-9; 15:1-17; 17:1-19], 모세[출 19:1-6], 다윗[삼하 7:4-21], 예레미야[렘 31:31-34])를 맺음으로 가시화 되어지고, 이 언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예수의 출생, 사역, 죽음, 부활로 그 내용과 성취에 있어 최절정에 도달하며(히 1:1-2; 눅 24:24; 행 13:32-33; 갈 3:15-18), 마침내 예수의 재림으로 완전 종결에 이르게 된다(계 22-22). 즉, 성경의 특별계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시될 뿐 아니라 성취, 적용됨을 보여준다(요 5:39; 고후 1:20). 이런 면에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관점(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을 그 핵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2.1.4. **성경의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 즉, 하나님 계시의 유기성(the Organic Wholeness of Gods Revelation)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해석 또는 이해(Holistic Interpretation or Understanding)를 추구한다.**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그의 계시가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 신적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 없는 성경의 신적 기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에 선지자들과 성경의 저자들로(즉, 인간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성경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은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 as Gods Word/ revelation)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4가지 특징을 볼 때,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피는 하나님 특별계시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역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인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기독교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성경신학적 접근인 것이다.** Vos의 이 같은 성경신학적 접근은 같은 프린스턴 교수였던 J.G. Machen (1881-1937), L. Berkohf (1873-1957), C. Van Til (1895-1987),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교수진들 즉 J. Murray(1930-66), E.P. Clowney, M. Kline, R.B. Gaffin, Jr., S. Ferguson, V. Poythress, T. Longman, III, J.M. Frame 등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개혁주의 전통에 선 신학자들에 의해 지금도 전수, 발전 중에 있다고 하겠다.

### 2.3. 현대 신약학의 경향 - 성경 해석학적 차원에서

성경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서구 성서학의 큰 강물은 지난 2세기를 거치는 동안 몇 가지 비평의 물줄기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비평의 물줄기들을 통틀어 역사비평적 방법(Historical Critical Method)이라 부르는데, 구약학과 신약학에 적용되던 이 성서학적 방법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철학적 해석학의 큰 영향 속에서 도전과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약학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시기로 편의상 구분해 볼 수 있다:



- (1)역사비평 이전의 시기(Pre-Critical/ Modern Period - 약 18세기 말까지)
- (2)역사비평의 시기(Critical/ Modern Period - 약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 (3)역사비평 이후의 시기(Post-Critical/ Modern Period - 20세기 중엽 이후로 현재).

역사비평 방법은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인과관계에 근거한 역사실증주의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다른 고대 문서와 동일하게 비판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고, 나아가서 저자 배후에 가려진 역사를 바르게 재구성하자고 하는 비평적 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18세기 말부터 현대 신약학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핵으로서의 주제가 바로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와 *신앙의 그리스도(Christ of Faith)*와의 관계에 대한 이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철학에서 독립된 세부 영역으로서의 일반 해석학 이론들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철학적 인식론이 20세기 중반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 새 비평(New Criticism)이 1920년대 이후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편, 성서학 내에서 역사비평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비평적 해석 방법의 객관성 내지는 정당성에 회의론을 품던 자들이, 일반 철학적 해석학과 문학 이론들을 수용하면서 새롭고도 다양한 성경해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역사비평 시기까지는 성경 해석의 주된 목적과 관심이 저자의 의도를 밝히려 한 것이었다면, 신약학에 있어서 새로운 문학비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석학적 관심의 초점이 저자로부터 독립된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 텍스트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에 있어 저자에서 텍스트로 옮겨진 성경해석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경 텍스트를 읽는 독자와 그 독자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게로 집중하게 된다.

20세기 초까지 전통적으로 서구 신학이 주로 철학이나 역사학에서 이론적 틀을 가져왔다면, 그 이후로 학문의 영역이 점점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신학/ 성서학은 철학이나 역사학 뿐 아니라, 해석학(Hermeneutics: M. Heidegger; H-G. Gadamer; P. Ricoeur), 언어학(Linguistics: F. Saussure; L. Wittgenstein; N. Chomsky), 기호학(Semiotics: R. Barthes; A-J. Grimas; U. Eco), 심리학(Psychology: S. Freud; C. Jung), 문학이론(Literary Criticism: W. Iser; S. Fish; M. Bakhtin; S. Chatman), (지식)사회학(Sociology: M. Weber; J. Habermas), 문화학(Cultural Studies), 여/남성학(Gender Studies) 등등의 이론들을 수용하면서, 21세기 성서학으로서의 신약학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연계학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면에서 작금에 사용되는 —비평(Criticism)이란 용어는 역사비평에 적용되었던 비평적 의미가 담긴 용어(critical term)라기 보다는 하나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용어(methodological term)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이런 해석학적 방법론 차원에서 일반 학문의 이론들이 성서학에 도입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신약학(물론 구약학을 포함하여)은 성경주석에서부터 기존의 세부적인 신학적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다양한 해석들을 선보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이 같은 해석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 Criticism), 사회학적 비평(Sociological Criticism), 사회과학적 비평(Social Scientific Criticism),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 독자 반응 비평(Reader Response Criticism), 후기 구조주의 비평(Post-Structural Criticism), 해체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 이념/ 세계관 비평(Ideological Criticism) 등등.

위에서 간단히 살펴 본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다소 일반화 시키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틀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석하는 해석자의 관심이 (i) 저자의 의도를 밝히기 위함인가? (Author-Centered: Grammatico-Historical Interpretation; Historical



Criticism), (ii) 성경 본문 텍스트의 자율적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함인가? (Text-Centered: Structural Criticism; Literary Criticism), (iii) 같은 성경 임에도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독자들 또는 그 공동체의 경향이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되는 의미들에 대한 흥미인가? (Reader-Centered: Reader Response Criticism; Ideological Criticism)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성경의 텍스트와 저자에 대한 주된 관심이 (i) 역사적인 것인가? (Historical-Centered: 양식비평에 이르기까지), (ii) 신학적인 것인가? (Theological-Centered: 편집비평 이후로), (iii) 문학적인 것인가? (Literary-Centered: 역사비평을 넘어서)로 범주화 시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학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볼 때, *성서학으로서의* 현대 신약학은 독자중심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후기현대주의 비평의 틀 속에서 성경의 독자적 권위를 상실한 채 전개될 전망이다. 물론 필자는 21세기의 성서학이 이런 측면으로만 일방적으로 발전될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약 100년 동안 견고한 성처럼 간주되었던 역사비평이 20세기 중엽부터 그 성벽의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오늘 날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과 이와 동시에 바로 그 옆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하나의 성이 여러 모양의 색깔을 띠면서 세워지고 있는 성서학계의 현실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날의 현대 구약학과 신약학이 해석학적 사사시대에 이미 돌입함으로써, *사람(독자로서의 학자, 학과, 교회, 교단, 민족, 등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석하고 행동)하는(삿 21:25)* 다원주의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갈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 2.4.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조우: 신학(과 교회)의 거침돌인가, 도움의 돌인가?

앞에서 논한 것들을 상기할 때,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상호관계는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리스 아텐의 상호관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성경신학(또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 성경신학)이 현대 신약학(또는 구약학)과 복음의 명예를 함께 뭉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전자가 후자와 손을 잡는 것이 기독교 신학과 교회에 있어 거침돌(stumbling block)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양 쪽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만남의 결과로 인해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집을 세우는데 있어 현대 신약학은 쓸모 있는 망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부서뜨리는 망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 열쇠의 키는 바로 도대체 누가(Who) 이 망치를 어떻게(How)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을 (고백)하는 자는 그 전제와 특징(2.2.1.을 참조할 것)을 신학함의 제 1원리로 삼으면서, 현대 신약학의 발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을 *비판적으로* 주목하고,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싶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현대 신약학의 한 해석 양식인 내러티브 비평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고,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전제 속에서 내러티브 비평을 포함한 현대 신약학의 새로운 방법론들을 폭 넓게 염두에 두면서, 더욱 발전적인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정초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고자 한다.

Narrative Criticism은 문학/ 문예비평(Literary Criticism)의 한 양식으로 우리말로 이야기 비평 또는 서사비평의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문학비평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 저자를 통해 문학적 형식(예를 들면, 이야기, 시, 서신 따위의 문학적 장르)을 빌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텍스트의 본질적인 성격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역사-문법적 해석이나 역사비평적 접근의 유용함이, 성경의 또 다른 본질적 특징, 즉,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어느 한 역사적 시점에 어떤 역사적인 사람에 의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면에서 후자의 해석 방법이 통시적(diachronic) 관점을 통해 성경의 텍스트를 창문(window)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면, 전자는 공시적(synchronic) 관점을 통해 텍스트를 거울(mirror)로 읽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문학비평으로서의 내러티브 비평에서 취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진술로 요약할 수 있다.



- (2) 내러티브 비평의 일차적이고도 주된 관심은 텍스트 배후 세계나 기록한 저자의 세계가 아닌 바로 텍스트 자체로서의 세계이다 - 텍스트 중심의 분석.
- (5) 텍스트가 특히 유기적이고도 통일성 있는 이야기 형식(organic & unified narrative: story[what] + discourse[how])으로 되어있으므로, 이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저자(implied author)와 이야기 진행자(narrator)와 내재된 독자(implied reader)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내러티브 커뮤니케이션 분석.
- (6) 이야기 형식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진행자의 관점(point of view)과 화법(narration/ rhetoric)의 특징을 주목한다 - 내레이터 (수사) 분석.
- (8)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람들(characters)과 벌어지는 사건들(events)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어떤 배경들(settings) 속에서 시작, 진행, 종료되는 지를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plot)를 분석한다 - 사건,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 분석.

신약학에서 내러티브 비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기존의 역사비평적 방법들이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이점들은 매우 고무적인 것들이다. 첫째, 성경의 각 권이 (가설에 기인한 어떤 자료들이나 양식들의 묶음집이 아닌)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말하자면, 우리 앞에 놓인 그대로의 상태로서* 성경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완성된 최종적 텍스트로서의 성경이 다른 어떤 참고문헌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차적 자료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 배경들, 줄거리에 대한 *텍스트 내적 관심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셋째, (역사비평과 달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내레이터와 내재된 저자에게 신뢰감과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내재된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성된 형태로서의 텍스트가 말하는 데로 찾기에* 힘쓴다. 이것은 텍스트를 여러 번 중복해서 세밀하게 읽도록(re-reading over and over again)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해석자가 임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신학적 또는/ 그리고 역사적 주제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 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내러티브 비평의 장점 뿐 아니라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도 또한 지적해야 한다. 첫째, 다른 문학비평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비평은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역사적 상황이나 그 역사성 자체에 무관심 내지 소홀하기 쉽다. 둘째는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역사적 기록자로서의 저자(flesh-and-blood author)의 의도가 텍스트에 내재된 저자의 의도와 내레이터의 의도와 차별을 둠으로써 파생되는 해석 목적에 있어 정체성 혼란의 문제이다. 셋째, 고대 문서로서의 성경을 현대 문학이론의 틀에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대착오적 오류(anachronistic fallacy)의 불가피성 등을 논할 수 있다(이것은, 성경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방법론에 상관없이, 모든 현대 성경 해석자들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지 않을까??).

내러티브 비평(그리고 정경비평)은, 역사비평과 비교해 볼 때,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과 더 친숙할 수 있는 공유점(예를 들면, 유기적이고 완성된 텍스트로서의 본문 중심에 의한 접근)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학비평으로서의 내러티브 비평 역시 (역사비평 못지 않게) 수용하지 못할 전제나 특징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역사비평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비평을 포함한 모든 현대 성서학의 비평들을 *하나의* 해석학적 도구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성경신학도들은 현대의 여러 다양한 해석적 방법론들을 먼저 잘 알고(그 기저에 깔린 철학적 전제들을 분명히 추적하면서), 그 가치의 효용성을 개혁주의 신앙의 전제에 기초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개혁주의 성경신학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그리고 깊게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현대 성서학 방법론들의 해석학적 틀의 위험성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의 유익과 통찰력을 통해, 현재 나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해석학적 틀을 더욱 역동적이고 개혁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의* 해석학적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비평을 포함한 현대 성서학의 해석학적 방법들을, 우리는 어떤 원리나 체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울러,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21세기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함(Doing Theology)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두 질문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함께 5가지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본 단락을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은 *역동적 성경신학(Dynamic Biblical Theology)*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무엇보다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말하자면, 성경이 스스로 증거함으로 그 해석학적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주요 구절들(e.g., 눅22:20; 히 1:1-2)을 축으로 해야 하는 성경신학 이어야 한다. 이 성경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틀이 Vos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 개혁되어지고 있는 성경신학(Developing & Reforming Biblical Theology)*이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 2.2.1.에서 다룬 이 방법의 전제와 특징은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할 때, 역동적 성경신학을 위한 하나의 초(超)-성경신학적 기초(Meta-Biblical-Theological Foundation)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이 기초 위에서 해야 될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사명 내지 과제라 할 수 있다.

(1)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Vos가 이미 제안하여 실천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성경원어에 기초한 바른 성경주해를 통해서 주요 성경 구절들에 대한 각론적 연구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총론적 연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역동성 있게 연구되어야 할 *성경주해 중심의 대화적 성경주해 신학(Dialogic Exegetical Biblical Theology)*이어야 할 것이다.

(2) 정경으로서의 신구약 성경을 함께 연구할 뿐 아니라 신학 안에서의 다른 제 분야(구약학, 신약학, 성경해석학, 조직/교리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특히 설교학)와 신학 밖에서의 다른 학문적 제 분야(해석학, 언어학, 문학이론, 사회학, 등등)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역동적이고 창조적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하는 *통합적 성경신학(Holistic Biblical Theology)*이어야 할 것이다. 해석학적 방법에 국한시킬 때, 이것은 또한 3중적 2가지 국면(three-fold two dimensions)의 역동적 원리를 고려하게 된다: (i) 통시적(구속역사적 - Historical) 접근과 공시적(문학적 - Literary) 접근의 만남을 통한 통합적(성경신학적 - Theological) 해석과 (ii) 저자(author)와 텍스트(text) 그리고 독자(reader)와의 상호 관계를 통한 의미의 역동성이다.

(3) 성경의 (신학적 주제와 그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성을 지향하는 *교향곡적 성경신학(Symphonic Biblical Theology)*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성경 각 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경신학적 주제의 독특한 목소리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고유의 소리들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의 화음을 이루게 되는 성경신학적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 텍스트 세계의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형식을 고려할 때, 현 성서학의 방법론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잘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

(4) 교회를 세우며, 덕을 끼치고, 말씀의 진리로 회복시켜주는 *바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for Faithful Community)*이어야 할 것이다. 바른 성경신학은 그 원리가 이론에서만



그칠 수 없는 역동적 생명신학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이, 학문적 변증과 확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로서의 삶의 현장을 섬길 줄 아는, 즉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구원신학을 지향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오늘 날 개혁주의 성경신학도들의 신학함의 사명은 일차적으로, 그 당시 자신들의 신앙공동체의 현재적 회원과 미래적 회원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신앙고백적 증거의 (말하자면, 원저자들의 신학함의 본래의) 사명(예를 들어, 눅 1:1-4; 계 1:1-3을 참조할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날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성서학의 경향에 대한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큰 사명이어야 한다. (이것은 21세기 기독교 서구 신학에 있어 *한국 신학도들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신학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성경신학이라기 보다 *바른* 교회를 위한 *바른* 성경신학이어야 하기에, 퇴색될 수 있는 전통적 교리에 대해서도 성경적 검증의 열린 자세를 잃지 않는, 해서 늘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됨으로 신앙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성경신학이어야 할 것이다.

(5)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for Everyday Life)*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예를 들면, 바른 신관, 인간관, 종말관, 물질관 등등)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역동적 삶을 살도록 세워주는 성경신학이어야 한다. 이것은 위의 (4)번째의 경우와 함께 고려할 때,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긴밀하게 (공동체를 위한) 조직신학과 (일상생활을 위한) 실천신학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2]의 경우를 참조하라).

그렇다면, 누가 이 같은 역동적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세울 것인가? 우선은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갖고 자기 전문분야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신약학, 구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등등)를 계속 익히면서, 타 분야와의 끊임없는 연계적 또는 대화적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신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신학이 아닌 다른) 일반(예를 들어, 철학, 역사학, 언어학, 등등) 학자들과의 연계학문적 대화(interdisciplinary academic dialogue)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이들 만의 대화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바로 목회자들과 일반 평신도들과의 다양하고도 폭 넓은 직, 간접적 교제를 통해 이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 검증을 받기도 해야 한다. 내일의 목회자와 신학자로 나서야 할 자들은 바로 이 같은 신학함의 역동성을 주지하면서, 오늘의 신학교 교실을 학문과 경건으로 달구어야 할 주인공들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내일은,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리고 함께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책임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연합 운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 3. 나가는 말

21세기 기독교 신학으로서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사명이라는 본 학회 주제와 필자의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신학(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 좁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깊어지고 가는 자들의 경건과 학문의 정도가 다른 신학(넓은 의미에서 비기독교 신학/ 좁은 의미에서 비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과의 그것과 경쟁력이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21세기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사명이 단지 기독교 신학 또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이란 제 용어들의 규명이나 또는 여기서 파생되는 신학적 제안으로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바로 이 신학의 사명은 기독교 신학과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현재 배우며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 학문적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명이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만남은 21세기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적인가, 동지인가? 이것은 결국,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두 분과는 교회와 세상 앞에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의 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